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1보)
-실루엣과 넥라인을 중심으로-

이 미 연 ·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Impression Formation According to Design Elements of Wedding
Dresses and Perceiver's Gender(Part I)**

-Emphasis on Silhouettes and Necklines of Wedding Dresses-

Mi-yeon Lee · Myoung-He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0. 1. 28 접수)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female impression formation based on silhouettes and necklines of wedding dresses, and to analyze the effect of silhouettes, necklines, and perceiver's gender on impression formation. The experimental design was $3 \times 6 \times 2$ (silhouettes \times necklines \times gender) factorial design by 3 independent variables. Samples were 432 males and females.

Four factors derived to account for the dimensions of impression formation. These were attractiveness, neatness, femininity, and prettiness. Dome silhouette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ession of attractiveness. Bell silhouette increased the impression of femininity and prettiness. Tubular silhouette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impressions of attractiveness, femininity, and prettiness. Necklin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ression of attractiveness and prettiness. Sweet-heart neckline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ession of attractiveness and negative on prettiness. Off-shoulder neckline increased the impression of prettiness. Round neckline decreased the impression of attractiveness. On the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neckline and perceiver's gender, the men perceived high-necklines to be more feminine than did women, while the women perceived off-shoulder necklines to be more feminine than did men. There was interaction effect between silhouette and neckline on prettiness. In dome silhouette, heart-shape neckline was perceived to be prettier than the others, while in bell silhouette, off-shoulder neckline was perceived as prettier than the others.

Key words: wedding dress, silhouette, neckline, perceiver's gender, impression formation;
웨딩드레스, 실루엣, 넥라인, 지각자 성별, 인상형성

I. 서론

결혼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인생의 중요한 행사이며, 이러한 결혼식날 당일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연출하는 것은 신부(新婦)의 웨딩드레스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 신부의 대다수가 백색의 웨딩드레스를 혼례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율에 비해 의복분야에서의 웨딩드레스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웨딩드레스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복식사 측면에서의 고찰(한상숙, 1985; 김민숙, 1989; 문윤경, 1995)이나 디자인 개발(현선진, 1986), 또는 마케팅 측면에서의 고찰(김영선, 1996)에서의 연구가 다소 있으며 인상형성이나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상을 형성하게 되며 특히 의복의 특징은 지각에 영향을 미쳐 상대방의 인상형성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상형성은 타인에 대한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전체적인 형태 안에 유의미한 형태로 통합되며 여러 정보들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또한 지각대상자가 지닌 특성 중 인상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특질이 있고 이 중심특질에 따라 주변특질의 의미가 결정되어 전체적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강혜원, 1995).

의복에 의한 인상평가는 지각대상자를 평가하는 지각자의 변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볼 때 지각자 변인으로는 주로 성별이나 연령이 연구되어졌다. 특히 성별은 대인지각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실제 연구결과(李京姬, 1991; 이선경, 1993; 이향미, 1995; 이현화, 박찬부, 1998)에 있어서도 지각자 성별에 따라 동일한 지각대상자의 의복이나 인상에 대한 평가가 달리 나타났다.

의복에 의해 형성되는 인상 지각은 의복의 각 디자인 요소에 대한 각각의 지각이 하나로 통합된 전체적인 영상으로 시지각에 의해 좌우되므로, 의복의 전체를 나타내는 실루엣과 의복의 부분을 나타내는 디테일 등의 상호관계에 의해 인상이 형성되며 이

러한 요소들은 다른 어떤 디자인 요소보다 감정, 정서 등을 전달하여 심리적 효과를 좌우한다(Horn & Gurel,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조합한 자극물을 제작하여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를 형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의류업체에 웨딩드레스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소비자가 웨딩드레스를 구입할 때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요인구조를 밝힌다.

둘째, 실루엣, 네크라인 및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를 규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상형성 이론

인상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의복변인과 주로 관련되어 연구되는 것으로는 두드러진 단서(salient cue), 범주화(categorization), 내현성격이론(implicit theory of personality)을 포함하는 사회적 인지(social cognition) 이론과 형태주의적 접근 이론(gestalt approach) 등이 있는데 이 중 본 연구의 배경이론이 되는 형태주의적 접근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태주의적 접근 이론은 Solomon Asch(1946)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낱개의 여러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context)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 형태주의적 접근 이론은 총체적 접근으로서 중심특질, 순서효과, 배경효과 등이 있다(강혜원, 1995). Asch(1946)는 인상(impression)이란 지각대상자가 지닌 특질·특성들이 상호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형성하는 하나의 일관된 전체형태(gestalt)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 그는 어

어떤 사람의 성격 특성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을 피험자에게 제시하여 일련의 실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였다. 자극특성 형용사 중 '따스한-차가운'과 같이 인상형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심특성(central trait)이 있으며, 중심특성에 따라 주변특성의 의미가 결정되고 전체적인 인상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중심특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맥락(context) 즉, 지각대상자가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제시된 다른 자극특성들의 영향을 받아 주변특성이 되거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심특성이건 주변특성이건 다른 특성과의 관련성에 의해서 최종적인 인상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Asch의 연구는 많은 의복과 행동 연구가에 의해 지지받았으며 또한 어떤 한 개의 외모 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외모 단서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좌우됨이 증명되었다(Baron, 1981). 예를 들어서 Lennon과 Miller(1984~85)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헤어스타일, 스커트의 길이 및 구두모양 같은 특정한 신체적 외모의 단서들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복합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어떤 한 개의 신체적 외모 단서의 영향은 비슷한 단서들이 있을 경우에는 줄고 비슷하지 않은 단서들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Asch의 형태주의적 접근 이론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은미(1992)는 남성 정장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남성 정장차림은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 시 비언어적 단서로 사용되며, 의복의 세부적 측면, 즉 정장색, 넥타이 색과 착용자 연령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력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의복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은 인상형성 시 주어지는 정보들을 조직화시켜 하나의 의미있는 전체형태로 지각되었다. 이용휘(1997)의 연구에서는 원피스드레스의 소매와 스커트 폭, 스커트 길이 변화가 착용자의 인상에 각기 독립된 정보로 처리되고 지각단계에서 이들 정보들은 상호작용으로 통합되어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태주의적 접근 이론을 지지하였다.

이현화·박찬부(1997)는 여자 한복 착용자에 대한

연구에서 의복단서인 치마 색상, 색상조화, 구조는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는데 의복단서 중에서도 색상 조화가 중심특질이 되어 다른 주변특질인 구조 색상보다 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주현·강혜원(1995)은 드레스 및 팬츠-블라우스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의상디자인 요소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의복유형이 팬츠일 때에는 하의길이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팬츠의 색채는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의상디자인 요소로서 부각되었다. 즉 의복유형이 스커트에서 팬츠 형태로 달라짐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의상디자인 요소도 달라졌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Asch의 이론에 적용시켜 의복유형에 따라 중심특질 정보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형태주의 입장의 인상형성이론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향미·김재숙(1998)은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의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각 독립변인은 인상차원에 각기 다르게 작용하였으며 독립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의복 색, 격식차림, 맥락은 단일단서의 영향이 아닌 총체적(Gestalt) 인상으로 통합되어 인상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의 디자인 요소

1) 실루엣

인체를 감싸는 것이 의복이라면 의복과 인체와의 사이에는 공간이 형성되며, 이러한 공간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서 의복의 외형(外形)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외형의 선을 실루엣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실루엣은 사람과 의복과의 사이에 있는 중간 공간의 분량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김영자, 1998). 실루엣은 복식에서 실루엣 라인 혹은 단지 라인이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형선으로 발전하여 복장 전체의 형(型), 모습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복의 실루엣이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石塚純子, 加藤雪枝, 梶山藤子(1987)는 의복형태의

이미지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스포츠룩은 기능성이 높고 토루소 라인은 기능성이 낮았으며 버블라인은 현시성이 높고 스트레이트 라인은 현시성이 낮게 나타났다. 아우어클래스 라인은 평가성이 높고 토루소 라인은 평가성이 낮은 편이었다.

李京姬(1991)의 연구에서는 H-line은 실용적이고 단순한 이미지가, A-line은 편안한 이미지, V-line은 불편하지만 노숙하고 세련된 이미지, X-line은 매력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李慶姬(1994)도 실루엣과 디테일에 의한 표면 이미지의 시각적 이미지 차이를 연구한 결과 귀여움 요인은 의복의 디테일에 의한 표면효과에 상관없이 A-line, X-line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은령(1995)은 어깨 폭, 스커트 폭, 스커트 길이가 실루엣에 미치는 영향과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어깨 폭 변화에 따른 실루엣 이미지 차이는 현시성 요인에서,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실루엣 이미지는 성숙성 요인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의와 스커트의 조합에 의한 색채효과를 연구한 上野清一郎 등(1980)은 스커트 폭이 좁고 스커트 길이가 짧으며 상의 웨이스트 폭이 좁은 형태는 세련되고 소극적이며 품위있고 경쾌하고 조화로운 이미지로, 스커트 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상의 웨이스트 폭이 넓은 형태는 촌스럽고 대담하며 양감 있고 부조화로운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Gibbins과 Coney(1981)의 연구에서 허벅지 길이의 스커트는 짧고 외형적으로, 가장 긴길이는 세련된 것으로 지각되었으며, 스커트 폭은 일자형이 세련되고 거만하고 덜 사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셔츠의 형태에서는 목이 깊게 파인 형이 짧고 사교적이며 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웅휘(1997)는 스커트 폭, 길이 및 소매형태의 변화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스커트 착용자는 더욱 어려보이나 품위 없고 지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스커트 착용자는 더 성숙해 보이고 드레시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스커트 폭에 관계없이 스커트 길이가 긴 것이 세련되며 부드럽고 보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커트 길이에 관계없이 폭이 좁은 경우에는 에 띄고 매력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실루엣 유형은 성숙성, 매력성, 편안성, 품위성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네크라인

네크라인이 위치한 목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이며 의복을 걸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의복구조상 매우 중요한 부위이다(김영자, 1998). 네크라인은 여러 가지 장식 표현에 따라 다양한 미적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전체적인 실루엣에 구조선이 적은 웨딩드레스에 있어서는 네크라인이 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현선진, 1986).

네크라인이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이윅희(1992)는 역삼각형의 얼굴에서는 보우트형의 라운드 네크라인이, 네모난 얼굴에서는 보우트형의 라운드 네크라인과 브이 네크라인이 잘 어울린다고 하였다. 긴 얼굴형에서는 브이, 스퀘어, 라운드 네크라인이 잘 어울렸으며, 둥근 얼굴형에서는 브이와 보우트형의 라운드 네크라인이 잘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현(1993)은 남성 캐주얼 웨어의 칼라형태와 인상형성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라운드 형의 네크라인이 가장 활동적인 인상으로 인식되었고, 사교적 인상은 비대칭형, 지적 인상과 품위있는 인상은 버튼 다운형의 셔츠 칼라에서 잘 나타나는 편이었다.

문남원·김옥진(1997)의 연구에서는 장방형과 둥근형의 얼굴은 브이 네크라인이, 계란형과 역삼각형의 얼굴은 라운드, 브이와 스퀘어 네크라인과의 조합이 더 미적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이미정·김준범·이인자(1997)는 얼굴 인상의 착시 실험을 한 결과 단순한 네크라인 선보다 V자 파임이 있는 복잡한 네크라인 선에서 얼굴이 커보이고 칼라의 크기도 클수록 얼굴의 크기가 커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볼 때 네크라인은 다른 의복 디자인 요소보다는 얼굴유형과 관련되어 시각적 착시효과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졌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1) 자극물

(1) 모델선정

자극물 속의 지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웨딩잡지에서 타원형의 표준 얼굴 유형에 해당하는 10명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얼굴 중심의 인물사진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크기(4×6cm)로 편집해서 배열한 후 이 얼굴 사진을 판단 집단에게 보여주고, 표준형의 얼굴에 가장 가까운 모델을 순서대로 4명 선택하여 순위를 표시하게 하였다. 판단 집단은 의류학 전공교수 및 대학원생 40명이었다. 그 결과를 기초로 1명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2) 자극물의 디자인 요소 선정

본 연구의 실험 얼굴 유형에 조합되어질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실루엣, 넥라인)의 결정은 1997년 1~12월호 웨딩잡지(마이웨딩, She's Bride)에 게재된 웨딩화보 455점의 디자인 요소 분석 결과(Lee & Lee, 1999)에 의해서였다.

즉 디자인 요소 분석 결과표에서 각각의 디자인 요소 중 출현 빈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실루엣에 있어서는 돔형, 벨형, 튜블러형이 선정되었다. 돔형 실루엣은 상체는 꼭끼고, 허리선 대 스커트 헴라인이 1:6.8 정도로 하체부분이 돔(dome) 모양인 실루엣이다. 벨형 실루엣은 상체는 꼭끼고, 허리선 대 스커트 헴라인이 1:5.3 정도로 하체부분이 종(bell) 모양인 실루엣이다. 튜블러형 실루엣은 역시 상체는 꼭끼고, 허리선 대 스커트 헴라인이 1:2.3 정도로 하체부분이 거의 일자로 내려오는 실루엣이다. 넥라인은 하이, 하트-세이프, 스윗-하트, 스퀘어, 라운드, 오프-숄더 넥라인이 선정되었는데 여기서 하트-세이프 넥라인은 가슴이 넓고 깊게 파지면서, 파인 앞 중앙이 하트형의 곡선으로 된 넥라인을 의미한다. 스윗-하트 넥라인은 가슴의 앞 중앙부분은 하트-세이프 넥라인과 같은 하트 모양이면서 목 양쪽으로 넥라인이 올라오는 형태이다.

(3) 자극물 제작방법

1단계: 자극물의 자세는 웨딩화보 중 모델의 자세가 정면이며 머리 끝에서 스커트 끝단까지 제시되면서 자세가 바른 것을 선택해서 스캐닝(scanning)한 후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2단계: '자극물의 디자인 요소 선정'에서 선택되어진 디자인 요소별 항목을 해당되는 웨딩화보에서 부분적으로 스캐닝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3단계: 2단계에서 입력된 부분적 디자인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단계에서 선정된 모델의 자세에 시뮬레이션(Simulation)하여 합성 의복자극물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자극물에서 모델의 착용자세, 헤어스타일, 헤어밴드, 베일, 장갑, 배경색과 같은 과외 변인들은 일정하게 통제시켰다. 배경색은 파란색(10B)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인상이나 이미지 측정을 위한 자극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채색을 배경색으로 했을 경우 흰색의 웨딩드레스가 너무 칙칙해 보이므로 토폰과 청결을 상징(김공주, 1996)하는 파란색을 사용하였다.

완성된 자극물의 수는 3가지 실루엣과 6가지 넥라인을 조합한 18개(3×6)이며, 이와 같은 자극물을 20×27cm의 전신 사진으로 칼라프린터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완성된 자극물은 실루엣과 넥라인 유형에 따라 W1에서 W18까지의 기호를 붙였다. 즉, W1은 돔형 실루엣에 하이 넥라인, W2는 돔형 실루엣에 하트-세이프 넥라인, W3은 돔형 실루엣에 스윗-하트 넥라인, W4는 돔형 실루엣에 스퀘어 넥라인, W5는 돔형 실루엣에 라운드 넥라인, W6은 돔형 실루엣에 오프-숄더 넥라인이 조합된 경우이다. W7은 벨형 실루엣에 하이 넥라인, W8은 벨형 실루엣에 하트-세이프 넥라인, W9는 벨형 실루엣에 스윗-하트 넥라인, W10은 벨형 실루엣에 스퀘어 넥라인, W11은 벨형 실루엣에 라운드 넥라인, W12는 벨형 실루엣에 오프-숄더 넥라인이 조합된 경우이다. W13은 튜블러형 실루엣에 하이 넥라인, W14는 튜블러형 실루엣에 하트-세이프 넥라인, W15는 튜블러형 실루엣에 스윗-하트 넥라인, W16은 튜블러형 실루엣에 스퀘어 넥라인, W17은 튜블러형 실루엣에 라운드 넥라인, W18은 튜블러형 실루엣에 오프-숄더 넥라인이 조합된 경우이다. 이때 W1~W18의 소매는 쇼트슬리브, 소재는 상하의 모두 무문직이며 장식은 없는 것이었다. [그림 1]은 벨형 실루엣에 스윗-하트 넥라인이 조합된 웨딩드레스를 착용한 모델의 모

습으로 자극물 W9이다.

2)의미미분척도의 형용사쌍 선정

의미미분척도에 사용된 형용사는 자유기술식 응답법과 선행연구(박혜선, 1982; 中野慎子の 3人, 1986; 이주현·강혜원, 1995; 李京姬, 1991; 차미승, 1992; 김희정·이경희, 1993; 李慶姬, 1994; 이은령, 1995; 이웅휘, 1996)에서 사용한 용어, 웨딩화보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남녀대학생 각각 60명씩 120명에게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1명의 피험자가 1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피험자에게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모든 형용사를 제한없이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선행연구에서 관련된 형용사 용어와 웨딩잡지에 실린 웨딩화보에서 웨딩드레스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형용사 용어를 수집하여 53개의 형용사쌍을 선택하였다. 이 중에서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부적절한 형용사쌍을 14개를 제외한 39개의 형용사쌍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선택된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요인분석과 Cronbach의 alpha 신뢰도 검증에 의하여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

은 결과의 <표 1>에서 제시되었다. 의미미분척도는 7점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피험자(지각자)는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20대에서 30대까지의 남녀 각각 216명씩 총 432명으로 구성되었다. 각 자극물에 남녀 각각 12명씩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피험자는 조사원이 제시하는 자극물의 사진을 보고 각 쌍의 형용사에 대하여 자극물에서 받은 인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하도록 지시받았다. 피험자가 응답할 설문지는 응답이 끝나는 즉시 회수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6월부터 7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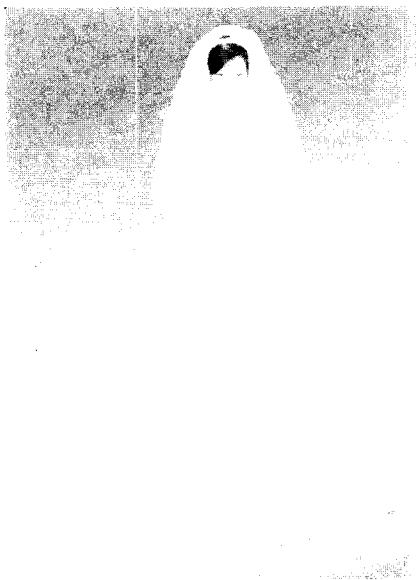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과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차원의 요인 분석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상을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39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을 고려하면서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4개 요인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3문항과 요인의 내용과 일치되지 않은 3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33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에 의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4에서 고유치가 비교적 크게 줄어들며 그 이후에 고유치의 감소가 완만하였으므로 고유치 1.61 이상의 4개 요인을 택하여 Varimax 방법으로 직교회전 하였다. 각 요인에서 부하량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항을 요인별로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매력적인—매력적이지 못한, 현대적인—고전적인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매력성 요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2는 단정한—단정하지 못한, 복잡한—단순한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단정성 요인이라고 칭



[그림 1] 웨빙형 실루엣에 스윗-하트 니크라인이 조합된 웨딩드레스를 착용한 자극물

〈표 1〉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평가 차원

요인 1. 매력성	요인부하량	요인 2. 단정성	요인부하량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못한	.70	단정한 - 단정하지 못한	.68
현대적인 - 고전적인	.63	복잡한 - 단순한(R)	-.66
시원한 - 답답한	.61	얇전한 - 얇전하지 못한	.63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61	순수한 - 순수하지 않은	.59
세련된 - 촌스러운	.59	깔끔한 - 깔끔하지 못한	.59
산뜻한 - 우중충한	.59	강렬한 - 무난한(R)	-.58
아름다운 - 아름답지 않은	.54	청순한 - 오염한	.57
보기 좋은 - 보기 싫은	.53	화려한 - 수수한(R)	-.53
고급스러운 - 대중적인	.53	정숙한 - 정숙하지 못한	.39
섹시한 - 섹시하지 않은	.52		
독특한 - 평범한	.48		
변량=22.5%, 누적변량=22.5%		변량: 13.5%, 누적변량: 36.0%	
고유치(eigenvalue)=7.42		고유치(eigenvalue)=4.44	
$\alpha=.85$		$\alpha=.79$	
요인 3. 여성성	요인부하량	요인 4. 귀여움성	요인부하량
따뜻한 - 차가운	.63	귀여운 - 성숙한	.67
여성적인 - 남성적인	.56	발랄한 - 점잖은	.61
부드러운 - 딱딱한	.52	상냥한 - 무뚝뚝한	.61
품위있는 - 품위없는	.51	경쾌한 - 장중한	.58
우아한 - 천박한	.51	밝은 - 어두운	.56
곡선적인 - 직선적인	.49	어려보이는 - 나이들어 보이는	.51
섬세한 - 대담한	.43		
변량=6.3%, 누적변량=42.3%		변량: 4.9%, 누적변량: 47.2%	
고유치(eigenvalue)=2.09		고유치(eigenvalue)=1.61	
$\alpha=.70$		$\alpha=.72$	

(R)은 반대로 해석되는 문항

하였다. 요인 3은 따뜻한-차가운, 여성적인-남성적인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여성성 요인이라고 하였고, 요인 4는 귀여운-성숙한, 발랄한-점잖은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귀여움성 요인이라고 칭하였다.

요인 1, 2, 3, 4의 고유치는 7.42, 4.44, 2.09, 1.61이었고 누적변량은 47.2%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요인구조의 성격을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구성평가 용어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요인 1인 매력성 요인은 李京姬(1991)와 이은령(1995)의 매력성 요인과 유사하였다. 요인 2인 단정성 요인은 이주현·강혜원(1995)의 깔끔함 요인, 김희정·이경희(1993)의 용모성 요인과 유사하였다. 요인 3인 여성성 요인은 차미승(1992), 이은령(1995)의 경연성 요인, 김희정·이경희(1993)의 여성성 요인과 유사하였다. 요인 4인 귀여움성 요인은

中野慎子 외 3인(1986), 이경희(1994)의 귀여움성 요인, 이주현·강혜원(1995), 이은령(1995), 이응휘(1997)의 성숙성 요인과 유사하였다.

각 변인의 cronbach의 α 신뢰도를 요인의 순서대로 보면 .85, .79, .70, .72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측정도구의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는 만족할 만 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4개 요인은 요인의 문항 점수를 합하여 문항 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과 각 문항의 양극으로 된 형용사 중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에 해당되는 특성과 그 요인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게 해당되는 문항의 점수를 거꾸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현대적인-고전적인'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현대적임을 의미한다.

2. 실루엣, 네크라인 및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평가

실루엣과 네크라인 및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평가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보조적 분석으로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주효과를 보면, 실루엣은 매력성, 여성성, 귀여움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 단정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MCA에서 나타난 실루엣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보면 돔형 실루엣과 벨형 실루엣 착용자가 매력적이고 여성적이면서도 귀엽게 평가되었다. 반면, 튜블러형 실루엣 착용자는 돔형이나 벨형 실루엣 착용자보다 매력적이지 못하고 귀엽지 않게 지각되었는데, 이것

은 직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튜블러형 실루엣이 풍성한 곡선라인으로 이루어진 돔형 실루엣과 벨형 실루엣보다 매력적이지 않고 딱딱한 이미지로 지각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용휘(1997)의 결과에서 스커트 폭이 좁은 경우에 눈에 띄고 독특하고 매력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것과는 상반되나 스커트 폭이 좁은 경우 딱딱한 인상을 주었다고 한 결과와는 일치한다. 이것은 스커트 폭에 의해 전달되는 이미지는 전체적인 의복 길이나 의복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하며 실루엣은 의복 착용자에 대한 시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 Delong(1987)의 진술과 일치한다.

네크라인은 매력성, 귀여움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 여성적 요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MCA에서 나타난 네크라인에 따른 평균의 차이를 보면 스윗-하트 네크라인 착용자가

<표 2> 실루엣, 네크라인 및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평가 차이 (N=432)

분석방법	변량원		df	매력성 F	단정성 F	여성성 F	귀여움성 F	
3원 변량분석	주효과	실루엣(A)	2	6.57**	1.52	10.51***	10.10***	
		네크라인(B)	5	2.69*	1.79	1.98	2.70*	
		성별(C)	1	13.36***	24.79**	2.68	13.98***	
	2원 상호작용효과	A×B	10	1.45	1.36	1.31	2.13*	
		A×C	2	0.04	0.01	1.75	1.63	
		B×C	5	1.24	1.14	2.69*	1.82	
	3원 상호작용 효과	A×B×C	10	1.41	1.06	1.36	0.62	
	집단내 오차			396				
	MCA	변인	속 성	N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평균의 차 eta
		실루엣	돔형	144	.12	-.02	.10	.10
벨형			144	.10	.09	.15	.16	
튜블러형			144	-.22	-.07	-.25	-.26	
			.17	.08	.21	.20		
네크라인		하이	72	-.16	.08	.01	-.17	
		하트-셰이프	72	.06	-.20	.01	.17	
		스윗-하트	72	.21	-.05	-.04	-.18	
		스퀘어	72	-.09	-.03	-.21	.00	
		라운드	72	-.20	.14	.04	-.02	
		오프-숄더	72	.18	.06	.20	.20	
					.17	.14	.14	.17
성별		남	216	.16	-.18	.06	.15	
		여	216	-.16	.18	-.06	-.15	
			.17	.23	.0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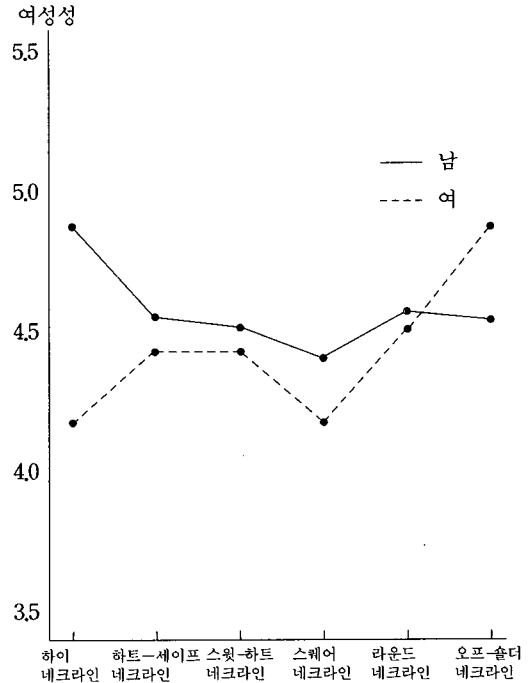
*p<.05 **p<.01 ***p<.001

가장 매력적으로 지각되었고 오프-숄더 네크라인 착용자가 가장 귀엽게 지각되었다. 라운드 네크라인 착용자는 가장 매력없이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지각 대상자의 인상은 네크라인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스윗-하트 네크라인 인 경우 그 형태가 가슴부분은 하트모양으로 파지면서 목옆으로는 깃모양처럼 네크라인이 올라오는 형태이므로 매력적이면서 세련된 이미지로 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라운드 네크라인은 칼라없는 티셔츠에 많이 이용되므로 활동적이고 평범한 이미지가 강하여(이지현, 1993) 웨딩드레스의 네크라인에 적용되었을 때는 착용자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각자 성별은 매력성, 단정성, 귀여움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여성성 요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실루엣과 네크라인에 있어서 동일한 지각대상자를 더 매력적이고 귀엽게 판단하였으나 여자는 남자보다 동일한 지각대상자를 오히려 단정하게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자들은 웨딩드레스 차림의 여성을 전반적으로 매력적이고 귀엽게 지각하였으나 여성은 각각의 디자인 요소와 장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각각의 디자인에 따라 단정하다거나 깔끔하게 지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여성성 요인과 귀여움성 요인에서 나타났다. 여성성 요인에 대한 네크라인과 성별에 의한 상호작용형태와 각 집단의 평균치는 [그림 2] <표 3>과 같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하이 네크라인 착용자를 더욱 여성스럽게 지각하였으나, 오프-숄더 네크라인 착용자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여성스럽게 지각하였다. 또한 여자는 6개의 네크라인 중에서 특히 오프-숄더 네크라인 착용자를 가장 여성스럽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는 남자보다 신



[그림 2] 여성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 성별과 네크라인에 의한 상호작용 형태

체를 노출한 스타일을 더 여성적으로 지각하며 남자는 개방적인 스타일보다 전통적인 웨딩드레스를 오히려 더 여성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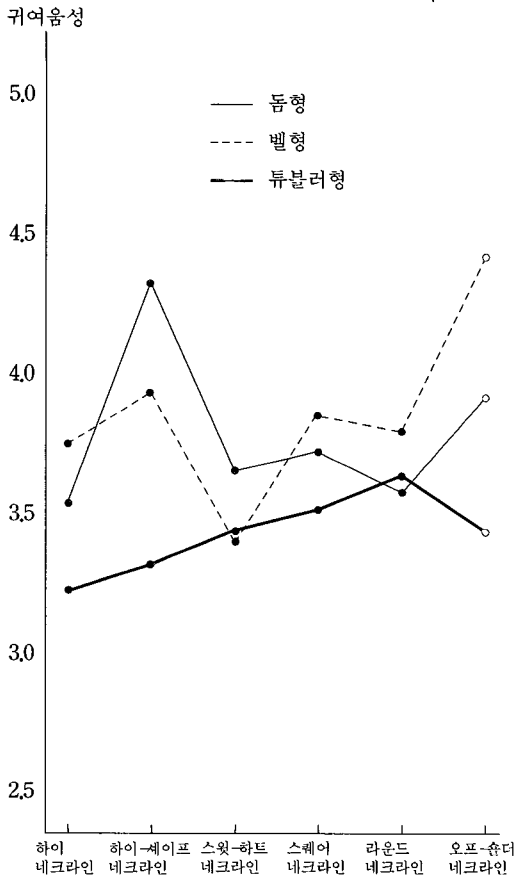
귀여움성 요인은 실루엣과 네크라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상호작용형태와 각 집단의 평균치는 [그림 3], <표 4>와 같다.

둥형 실루엣에서는 하트-세이프 네크라인이 가장 귀엽게 지각되었으며, 벨형 실루엣에서는 스윗-하트 네크라인이 가장 성숙하게 지각되었고 오프-숄더 네크라인이 가장 귀엽게 지각되었다. 오프-숄더 네크라인은 어깨가 약간 드러나면서 가슴 부분이 곡선형으로 넓게 파진 네크라인으로서 벨형 실루엣과 조화될 때 귀여운 이미지가 강조된다고 할

<표 3> 여성성 요인에 대한 지각자 성별과 네크라인에 따른 평균치

(N=432)

네크라인 성별	하이	하트-세이프	스윗-하트	스퀘어	라운드	오프-숄더
남	4.80	4.56	4.48	4.38	4.57	4.52
여	4.19	4.43	4.42	4.18	4.48	4.86



[그림 3] 귀여움성 요인에 대한 실루엣과 넥크라인에 의한 상호작용 형태

수 있다. 튜블러형 실루엣은 넥크라인에 따른 변화가 비교적 적었으며, 전체적으로 성숙하게 평가된 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인상형성에 미치는 실루엣의 영향력은 넥크라인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독립된 정보로 작용할 때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결혼식 당일 자신의 이미지를 귀엽게 연출하고

자 하는 신부는 돛형 실루엣에 하트-셰이프 넥크라인이 디자인된 웨딩드레스나 벨형 실루엣에 오프-숄더 넥크라인으로 디자인된 웨딩드레스를 착용하면 귀여운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숙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신부는 벨형 실루엣에 스윗-하트 넥크라인이 디자인된 웨딩드레스나 튜블러형 실루엣의 드레스를 착용하는 것이 이미지 연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Asch의 이론에 의해 볼 때 날개의 여러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정해지는 즉, 실루엣에 의해 전달되는 한 정보는 넥크라인과의 관련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특성은 상호간의 관련성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전체 인상에 영향을 주므로 형태주의(gestalt) 이론을 지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복유형에 따라 하의길이 및 색채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이주현·강혜원(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인상형성에 미치는 소매의 영향력은 스커트 폭과 길이에 따라 차이를 보여 독립된 정보로 작용할 때와는 다르다고 한 이용휘(1997)의 연구 결과를 형태주의적 이론 측면에서 지지한다고 본다. 또한 이항미·김재숙(1998)의 연구에서 의복 색, 격식차림, 맥락은 단일단서의 영향이 아닌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총체적(gestalt) 인상으로 통합되어 인상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실루엣, 넥크라인 및 지각자 성별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의 차이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귀여움성 요인에 대한 실루엣과 넥크라인에 따른 평균치

(N=432)

넥크라인 실루엣	하이	하트-셰이프	스윗-하트	스퀘어	라운드	오프-숄더
돛형	3.59	4.35	3.69	3.72	3.58	3.90
벨형	3.76	3.94	3.42	3.88	3.80	4.42
튜블러형	3.25	3.35	3.47	3.53	3.67	3.42

실루엣과 네크라인에 따른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평가의 내용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이 도출되어 매력성, 단정성, 여성성, 귀여움성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실루엣은 매력성, 여성성, 귀여움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뚱뚱 실루엣과 벨형 실루엣은 매력적이고 여성적이면서도 귀엽게 평가되었다. 반면 튜블러형 실루엣은 가장 매력적이지 못하고 여성적이지 않으면서 귀엽지 않게 지각되었다.

네크라인은 매력성, 귀여움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 여성성 요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스윗-하트 네크라인이 가장 매력적이며 성숙하게 평가되었고 오프-숄더 네크라인이 가장 귀엽게 지각되었다. 그러나 라운드 네크라인은 가장 매력없이 평가되었다.

지각자 성별은 매력성, 단정성, 귀여움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남자는 여자보다 다양한 실루엣 및 네크라인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동일한 지각대상자를 더 매력적이며 귀엽게 판단하였으나 여자는 남자보다 동일한 지각대상자를 더욱 단정하게 평가하였다.

여성성 요인에 있어서는 네크라인과 지각자 성별의 2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남자는 여자보다 하이 네크라인을 더 여성스럽게 지각하였으나, 오프-숄더 네크라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여성스럽게 평가하였다. 귀여움성 요인은 실루엣과 네크라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뚱뚱 실루엣에서는 하트-세이프 네크라인이 가장 귀엽게 지각되었고, 벨형 실루엣에서는 스윗-하트 네크라인이 가장 성숙하게 지각되었으며 오프-숄더 네크라인이 가장 귀엽게 지각되었다. 즉 전체적인 실루엣이 전달하는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함께 하는 네크라인의 조합에 의해 또 다른 의미가 전달됨으로써 인상형성 이론 중 형태주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4개의 인상차원에 각기 다르게 작용하였으며 독립변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결과로 보아 어느 특정변인의 인상효과가 아닌 개별적인 독립변인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전체적인 인상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웨딩드레스의 실루엣, 네크라인과 지각자 성별은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가 됨을 확인하였고 이들 단서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소비자가 웨딩드레스를 구입할 때 자신의 이미지 연출에 도움이 되는 의복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시기가 여름철이었으므로 실루엣과 네크라인에 따른 인상형성 차이의 결과를 4계절에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자극물이 실물의 웨딩드레스가 아니고 잡지에 나타난 웨딩드레스 사진을 부위별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한 것이므로 연구결과의 확대 해석에 신중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웨딩드레스 착용자의 의복단서로 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제한시켜 인상형성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 이외에 소매유형이나 소재, 장식, 그 밖에 지각대상자의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화장 등에 의해서도 의복효과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른 디자인 요소, 베일을 포함한 헤어스타일, 신체적 특징 등에 따른 웨딩드레스 이미지 지각과 착시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웨딩드레스의 네크라인이나 소매에 있어서 노출이 유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각자의 연령이나 태도 등의 심리변인에 따라 신체노출이 서로 다른 웨딩드레스의 인상평가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필요시 된다.

참 고 문 헌

-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 서울:교문사, pp. 43-52.
 김공주 편(1996). 색채과학. 서울:대광서림, p. 119.
 김민숙(1989). 웨딩드레스(Wedding Dress)에 관한 연구: 웨딩드레스의 변천과정과 업계현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영선(1996). 예식문화변화에 따른 웨딩드레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영자(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경춘사, pp. 134-135.
 김희정·李京姬(1993). 의복자극물과 제시방법에 따른 시

- 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7(3), 428-435.
- 문남원·김옥진(1997). 얼굴유형과 의복 네크라인과의 조화 연구. *복식*, 35, 305-323.
- 문윤경(1995). 우리나라 웨딩드레스의 근대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해선(1982). 의복에 대한 의미미분척도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李京姬(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李慶姬(1994). 의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1997). 의복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287-1296.
- 이선경(1993). 남성복 유형과 얼굴 매력성이 직업특성 및 인상추론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옥희(1992). 네크라인이 얼굴형에 미치는 시지각적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용휘(1997). 스커트 폭, 길이 및 소매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이은령(1995). 실루엣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X-line의 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이은미(1992). 남성 정장착용자의 연령 및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주현·강혜원(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984-994.
- 이지현(1993). 남성 캐주얼웨어의 칼라형태와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이향미·김재숙(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312-320.
- 이현화·박찬부(1997).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 의복 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 313-336.
- 차미승(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한상숙(1985). 근대 이후 한국의 혼례복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현선진(1986). Wedding Dress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上野清一郎, 伊藤純子, 牧野眞理子(1980). 이미지用語によるシルエットの分類化(4): 上着とスカートの組合せにおける色彩効果. *繊維製品消費科學*, 21(8), 341-347.
- 石塚純子, 加藤雪枝, 梶山藤子(1987).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着装イメージ. *日本家政學會誌*, 38(4), 321-332.
- 中野慎子, 錢谷八榮子, 岡部和代·山名信子(1986). 寫眞とデザイン誌によるイメージの相違. *日本衣服學會誌*, 30(1), 6-12.
- Asch, S. E.(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258-290, 고애란(1990). Suit의 색과 신체노출이 정숙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pp. 10-11에서 재인용.
- Baron, R. A.(1981). Olfaction and Human Social Behavior: Effects of a Pleasant Scent on Attraction and Social Percep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611-616, cited by Lennon, S. J., & Davis, L. L. Clothing and Human Behavior from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Part I: Theoretical Perspectiv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7(4), 41-48.
- Delong, M. R.(1987). *The Way We Look*.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p. 133-136.
- Gibbins, K., & Coney J. R(1981).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s of Women's Cloth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53, 720-722.
- Horn, M. R.,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 295-296.
- Lennon, S. J., & Miller, F. G.(1984-85). Attire, Physical Appearance, and First Impressions: More Is L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1), 1-8.
- Lee, M. Y. & Lee, M. H.(1999). A Content Analysis of Fashion Trends in Wedding Dresses: Using Wedding Dress Magazine, 'My Wedding' and 'She's Bride' Issued in 1997.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stume Culture*, 2(2), 45-59.